

회원사동정

LG전선(주)

이스라엘 地中送電網 수주

LG 전선(대표 : 權攸久)과 LG 상사(대표 : 朴秀煥)가 이스라엘 전력청(IFC)으로부터 초고압 地中送電망 공사를 단일공사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8천 3백만달러에 수주했다.

LG전선은 지난 9월 8일 「지난 3월 이스라엘 전력청의 초고압 지중송전 케이블공사 국제입찰에서 LG상사와 컨소시엄으로 참가, 유럽의 알카텔-피델리, 일본의 스미토모-후루카와 등을 제치고 모두 16개 업체 중에서 주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LG가 이번에 공급하는 케이블은 텔아비브 하이파예루살렘 네게브 등 이스라엘 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00km에 161kV의 초고압전송망이다. LG는 다음달부터 '98년 6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초고압 케이블의 납품 및 시공을 맡게 되며 공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35% 규모의 공사를 추가로 수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총공사규모는 1억 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LG전선 전력사업부장(상무)은 「이번 공사수주는 한국의 초고압분야 기술력이 세계정상임을 입증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제협력확대는 물론 인근의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지

역의 전력화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희성전선(주)

光통신사업 본격진출

국내 빅3 전선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인 喜星電線(대표 裴恩出)에서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광통신케이블사업이 '97년초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올해 1월 LG그룹에서 본격 분리, 희성그룹 주력기업인 國際電線에서 상호를 喜星電線으로 변경·출발한 이 회사는 신규프로젝트로 광케이블사업에 진출, 연말부터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판활동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가 현재 추진중인 광케이블 생산라인은 전주통신전문공장에 건설될 것이며 설비는 핀란드 노키아社로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1백억원 규모의 건설 및 설비투자를 한 희성전선의 전주 광케이블 생산공장은 우선 1차적으로 케이블링부문에 국한기로 하고 향후 2·3차적으로 광섬유부문까지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광케이블분야는 이미 기존의 LG전선·대한전선·삼성전자·대우통신 등 4개사의 광케이블사업 진출업체들과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中國을 비롯한 東南亞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에 우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성전선(주)

中國 合作공장 준공

大成電線(대표 梁始伯)이 중국 광서성에 설립한 합작현지법인 「남영화성 유한책임공사」가 지난 8월 28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총자본금 5백만달러 규모가 투자된 남영화성 유한공사는 이로써 본격적인 통신케이블 생산에 들어가, 중국 남단부를 중심으로 판매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8월 28일 준공식을 위해 梁始伯 대성전선사장 등 일행 4명은 27일 출국, 행사일정을 돌아보고 31일 귀국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원 설립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설 전기재해 예방기술원이 지난 8월 22일 설립되었다.

이날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 기술원은 앞으로 4천만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의 전기 및 통신공사의 재해 예방기술지도를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4천만원 이상 전기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표준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1.24%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사업체는 반드시 4천

회 원 사 동 정

만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전담기술지도를,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정기기술지도를 각각 받아야 한다.

이날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통신공사협회의 부설 재해예방진단기관만이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4천만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발주자는 전담기술지도계약 미체결의 경우 40%, 정기기술지도계약 미체결의 경우 30%의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기술지도수수료는 전담기술지도는 안전관리비 총액의 19%, 정기기술지도는 안전관리비 총액의 15% 상당이다.

삼화기연(주)

해외 생산기지 대폭 확대

과 전류 계전기업체인 三和技研(대표 金仁錫)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해외생산기지를 잇따라 설립, 세계적인 생산망을 구축한다.

세계 최초로 전자식으로 과전류를 차단해주는 계전기를 개발해 1백50여개 국에 특허를 획득한 이 회사는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6개의 생산기지와 1백개 대리점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베트남호치민시에 한반기에 20만달러를 투자해 월산 5천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중국에는 천진시에 30만달러를 투자해 월산 1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설립, 국내 수입하는 한편 이중 20%는 중국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에 조만간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해외생산기지 설립 자금은 산업은행의 벤처자금을 받아 마련한 계획이다.

이 회사는 전자식 과전류계전기 전문업체로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 전기전자부문 은상, 피츠버그 국제 발명신제품 전시회 은상을 비롯 국내외 각종 발명상을 수상했으며 보호계전기 단일 품목으로 지난 해 수출 1백만불탑을 수상했다.

金仁錫 사장은 앞으로 세계 최대의 가전류 보호계전기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미국,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도 계속 생산기지를 설립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3년간 총 5억원을 투입해 과전류 방지 경보설정을 디지털 표시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계전기를 개발해 양산에 들어갔다.

올해 수출목표는 2백만 달러이며 매출실적은 1백억원이다.

LG산전(주)

에너지절약사업 본격 진출

LG 산전(대표 李鍾秀)이 에너지 절약사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에 본격 참여키로

하고 최근 통상산업부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제도란 전문기업이 빌딩 및 산업체의 에너지설비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기기(인버터, 전자식안정기 등)를 무료로 설치/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투자, 운영비 및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즉, 건물소유주(소비자)에게는 투자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켜주고, 정부에게는 효율적인 부하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의 혜택을, 그리고 전문기업은 기기 공급 및 서비스로 이윤을 환수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92년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사업이다.

LG산전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국제적인 에너지 절약 관련협회인 미국의 AESP(The Association of Energy Services Professionals)에 가입을 하였으며,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팀을 조직하였다.

사업전개면에서 볼 때 LG산전은 '인버터, 전자식안정기, 최대수요전력감시 제어 장치' 등 다양한 고효율기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등 어느 기업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효율기기의 제조부터 진단, 설치, 관리까지 "Total Energy Service Company"로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초기인 금년도는 우선 Pilot Project를 추진하여 기술과 Know-How를 축적해 나가, 이를 경험삼아 향후 에

회원사동정

너지 절약과 관련된 전제품을 적용시켜 Escos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개될 주사업분야로서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크며 자사 생산제품의 적용이 용이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시설, 건물 및 공공기관 건물, 시설물의 조명, 냉동, 공조분야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설치 및 사후관리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자사의 서비스정보센터 등 기존조직과 효율적 연계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LG산전은 본격적인 사업이 활성화될 내년에 매출목표 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고효율기기에 대한 자사의 풍부한 기술력 및 경험의 바탕위에 선진사와의 기술협력에 의한 다양한 절약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조직 및 기술력을 매년 보강하여 오는 2000년에는 약 500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국내 선두를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LG산전은 국내 최초로 자유낙하 방지용 비상브레이크를 채택한 20톤급 전동호이스트(모델명 : EHH-20HW)를 개발하고 곧 시판에 들어간다.

전동호이스트란 공장자동화에 필수적인 물류시스템 중 업종에 관계없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운반하역기로서 무거운 물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데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안전성 확보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다.

LG산전이 이번에 개발한 호이스트는 국내 최초로 자유낙하 방지용 비상 브

레이크를 채택해 호이스트가 규정속도의 140% 이상으로 낙하하게 되면 2차 비상브레이크가 작동해 제동을 시켜주는 최첨단 제품으로 사용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자동차의 ABS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횡행브레이크를 장착해 호이스트의 작동개시와 정지시 흔들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를 작업내용에 알맞게 브레이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브레이크의 장착으로 사용자는 호이스트의 작동개시와 정지시 작업물의 하중에 의한 원심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승인한 과하중 방지장치를 컨트롤박스에 장착해 규정된 무게 이상의 물건을 들게 되면 컨트롤러에 장착된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과전류를 감지, 작동을 정지시켜 안전재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다.

또 이번에 개발한 호이스트용 전용모터는 20톤급에 맞게 설계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모터에 비하여 사용빈도수를 60% 이상 향상시켜 1시간에 400번의 동작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동전류가 적어 전기료가 적게 들며, 절연성능이 우수하여 열에 의해 모터가 소손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LG산전은 이번 20톤급 호이스트의 개발로 1톤부터 20톤까지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도 국내 8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1위(약 45%)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2회 국제전기안전 세미나 개최

전 기재해 예방기틀을 다지고 전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2회 국제 전기안전세미나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홍세기) 주최로 지난 9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시험연구원의 이은철박사가 전기사용장소의 고조파 장해 분석연구를, ▲日本전력중앙연구소의 오카모도박사가 전력기기(변압기)의 최신 진단기술과 전문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서울산업대학교 정재희 박사가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등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또한 주제발표후 ▲김창중 수원대학교 수 ▲김일환 한국전력기술 부장 ▲한상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장은 이승원 서울대명예교수의 사회로 전기안전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준호 통산부차관 정책실장을 비롯 윤희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송병권 한전배전처장, 서두효 한국전기공사협회상임감사 등 외 부인사 2백여명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홍세기이사장, 변재식감사, 안석규기획이사, 김덕겸관리이사, 현정봉기술이사, 정하규안전교육이사, 김윤엔지니어링본부장, 김영주 전기안전시험연구원장 등 임직원 2백여명을 합쳐 4백여 명이 참석했다.